

## 믿음과 우리의 신분

창 20:1-7

우리가 이렇게 매 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이 신앙생활이 어떨 때는 힘들고 재미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 기도 할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서 “OO 집사, 염려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고난이 닥쳐와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고 부족합니다. 좀 더 착하고 덜 착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누구나 지옥가야 합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아브라함의 인격과 그의 삶을 결코 미화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성실함이라든지 그의 선한 행위 역시 성경의 주된 관심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행을 시작한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실수를 거듭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이라는 땅에 우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우거한 그랄 땅은 블레셋 사람들이 머무는 땅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민족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에 들어오자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엄습한 것 같습니다. 11 절을 보면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그래서 애굽에서 했던 것과 같은 실수를 또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자기 아내 사래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던 실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랄 땅 아비멜렉 왕 앞에서 애굽에서와 똑같은 실수, 똑같은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또 자기 아내 사래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참 한심합니다. 나이도 들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 가면 인격도 변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었다고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인해 심판받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거짓말을 하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거듭 죄를 범하는 것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아무 것도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은 어쩌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 속에서 인간 속에 깊이 뿌리내린 ‘죄’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선택된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들의 말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 중의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 중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악의 끈질긴 습관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정도 실수를 거듭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그는 당연히 실패해야 할 사람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이한나 목사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거듭 죄를 범하는 아브라함을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십니다. 참 이상합니다. 1-2 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왕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남편인 아브라함은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3 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위협합니다. 7 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너무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16-18 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라의 일로 인해 아비멜렉의 집에 저주를 내렸는데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단히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아비멜렉은 이 문제에 관한 한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의 집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렇게 항의합니다. “나는 이 일에 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아니했습니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잘못도 없는 아비멜렉의 집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의 죄를 미화하거나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죄를 그냥 넘기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이 보여주는 중요한 진리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정죄를 당하거나 저주에 빠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비멜렉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윤리적으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 윤리와 도덕의 눈으로 보면 오늘 성경말씀이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구원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안 지은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죄 사함을 받은 자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죄가 많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정죄는 끝났습니다.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죄는 없지만 징계가 있습니다. 정죄와 징계는 다릅니다. 정죄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는 벌을 주는 것입니다. 정죄는 경찰이 죄인을 잡아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라면 징계는 자녀가 잘못할 때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고 매를 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7 절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은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이한나 목사

아브라함이 죄를 짓고 창피를 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자 한번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중에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누가 더 의롭습니까? 당연히 아비멜렉입니다. 그리고 누가 창피를 당하는 자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창피를 당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는 선지자’라고 아비멜렉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마 ‘아니 선지자가 그 모양이냐? 선지자 자격 없다.’ 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윤리적인 눈으로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는 선지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은 윤리적인 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가 자녀를 보는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좀 모자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착하고 의롭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본문 8 절 이하를 보면 아비멜렉왕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 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9) 아비멜렉의 항의는 옳았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쁘더라’ ‘예수 안 믿어도 나만큼만 착해봐라’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수모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멜렉이 큰 소리치고 아브라함은 초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 “그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마치 자랑스럽다는 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윤리나 도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윤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이 땅을 사느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중보의 자리에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 절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자라는 아브라함을 높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는 저주를 내리시고는 이제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해야 네가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아비멜렉 집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집의 운명을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이 좀 모자라도 그들에게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보다 돈이 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불신자들이 성도들보다 윤리적으로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좀 윤리적이다 라는 것으로는 저주를 이길 수 없습니다. 돈이 좀 있다고 하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집에 임한 저주를 해결할 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이한나 목사

17 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의 집안에 임한 하나님의 저주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윤리적으로 볼 때 문제가 좀 있어도, 실수도 하고 좀 모자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의 집을 치료하셨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기도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해도, 우리 교회가 아직 이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아비멜렉의 집을 치유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이 없는 우리 교회이지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했듯이 우리는 이 지역사회와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자신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깊은 절망감에 빠져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모자람 때문에 낙심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죄책감에 빠져 있다든지 자신의 무능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윤리적인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자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만 제대로 붙잡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